

경제성 내실 겸비한 부녀교육, 주부들에게 인기 높다

‘부녀교실’ ‘부녀복지관’ 실속과 주부들의 수강 급증

‘꿈을 키우는데’ 드는 돈 1만2천원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사는 주부 김미영(28) 씨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 무역회사에 근무하다가 1년전 결혼과 동시에 퇴직한 전업주부다.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조금씩 생기자 그는 조그만 화장품할인코너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왕 ‘사업’ 한번 하는 것 제대로 해보자는 요량으로 그는 얼마전 구로부녀복지관에서 메이크업을 배웠다. 지난 9월에는 판매기술, 경영방법을 익히기 위해 마포부녀복지관에서 개설되는 판매사과정에 등록하기도 했다. 그가 자신의 꿈을 키우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경비는 1만2천원. 판매사과정 수료까지 합치면 총 2만8천원이 든다.

주부들의 여가활용과 부업을 위한 취미·기술교육에 서울시 산하 부녀교육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미혼여성과 주부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양재, 미용, 급식 조리 등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각 구청 산하 ‘부녀교실’과 서울시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녀복지관’을 들 수 있다.

30대 고졸 주부 대부분, 실속과 대졸 주부 참여 증가

취미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부녀교실은 90년 9월말 현재 18개구 21곳이 개설돼, 양재, 지점토, 한복, 홈패션, 기계

자수에서 미용, 요리, 외국어까지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또 저소득층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부업을 위한 기술교육에 초점을 둔 부녀복지관은 마포, 노원, 구로구 등 3곳에 개설돼 있다. 이곳에서는 부녀교실의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유아교육, 환자간병 등을 지도하는 가사관리와 제과 제빵, 광고디자인과정이 있는 것이 특징.

부녀교실은 현재 한 과목당 3개월 과정으로 1년에 4번 2천8백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고 부녀복지관에서는 1년에 3번 1월, 5월, 9월에 2천7백여 명을 모집하고 있지만 “매번 신청자가 몰려 기술교육 ‘재수생’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부녀교육 프로그램은 70년도에 저소득층 부녀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처음으로 개설됐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시설이 영세하고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지 않아 일반여성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내실을 갖추면서 저소득층 주부에게는 물론 여가를 활용하려는 미혼여성, 젊은 주부들에게도 크게 환영받고 있다. 마포부녀복지관의 이봉기 씨에 따르면 “수강신청자 가운데 80%는 30~40대 고졸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외에도 기술교육을 받아 가계에 도움을 주려는 젊은 실속과 대졸 주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양재, 요리에서 외국어까지 수강료는 대부분 무료

취미·기술강좌가 크게 인기



▲서초부녀교실에서 양재실습을 하고 있는 미혼여성과 주부들. 사설학원에서 간단한 옷만들기를 배우려면 12만원정도 드는데 비해 부녀교실에서는 대부분이 무료로 알뜰 주부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 교육이 대부분 무료로 행해져 경제적인 부담 없이도 수강이 가능하고, 수강료가 있더라도 1개월에 4천원 정도라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7·8급 훈련교사를 강사로 채용한 이들 기관은 교육내용도 실속이 있어 사설학원에 못지 않다는 것이 이곳을 수료한 주부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일반 학원에서 취미로 간단한 의복 만들기를 배우려면 12만원 정도 들어요. 요리학원도 마찬가지로 문화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사설학원보다는 비용이 적지만 요리, 공예 등을 배우는데 최소한 4만원~6만원 정도가 들어 일반주부들이 ‘여가활용’에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노원부녀교실에서 양재과정을 배운 후 자신과 아이들의 옷은 직접 지어 입는다는 주부 구영은(36) 씨는 “전문 디자이너로 나서려는 의도가 아닌 한 스스로 옷을 지어 입기 위한 것으로는 부녀교실이 사설학원의 취미과정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한다.

이사철엔

도배과 취업률 1백%

부녀교실이나 부녀복지관에서 3~4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본인이 원할 경우 취업상담을 한 후에 소점포를 차리는 사람도 있고 전문기능사 자격증을 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요즘처럼 건축경기가 활발할 때나 이사철에는 도배과가 가장 인기가 좋아 1백%의 취업율을 보인다는 게 부녀복지관 관계자의 얘기. 도배과를 수료하면 초기엔 2만5천원 정도의 일당을 받지만 2~3년의 경력이 쌓이면 일당이 5만원 정도로 뛰어올라 부업을 하던 주부가 남편과 함께 아예 지물포를 차려 본격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마포부녀복지관 교육상담원 정윤희 씨에 따르면 수료를 한 여성중 주부들은 대개가 일자리를 원한다는 것. 복지관은 부녀자들의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 부녀교실에 비해 취업을 원하는 주부도 있고 전문기능사 자격증을 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권하는 편이다.

일용직은 파출요리사, 이사를 돕는 이사파출인, 상가집 일을 해주는 상가파출인에서부터 탁아모, 간병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요즘처럼 의류생산업체에서 수출물량은 밀리는 데 인력이 달릴 때는 양재나 미성자수를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미성사 파출인력이 인기가 좋다.

꼭 부업전선에 뛰어들지 않아도 가사관리 등을 수료할 경우에는 보육원 등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부녀교실 아파트마다 설치, 교양대학도 늘릴 예정

취미·기술교육 강좌가 큰 인기를 끌자 각 부녀복지관은 82년부터 교양대학프로그램도 마련해 한문, 철학, 음악 등의 강좌를 개설했다. 이와 더불어 각 부녀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방안도 구상중. 서울시 부녀복지관 김영진 씨는 “각 구청별로 있는 현재의 부녀교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머니교실’ 형태로 아파트단지마다 부녀교실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또 현재 부녀복지관에만 개설돼 있는 교양대학을 금년부터는 각 구별로 ‘부녀교실’이 있는 곳에 함께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개설될 교양대학에서는 생활법률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강좌도 포함돼 있어 내실있는 기술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창희 기자)